군불교 중심 홍제사 불사 '본격 시동'

조계종 군종특별교구 6월 9일 불사 현장서 기원재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선묵 혜자 스님 "불교 중심 터전"
청년 포교 및 템플스테이도 가능
62억모연, 2022년 6월완공 예정


군불교 중심터전이 될 홍제사의 교육관 건물 앞에서 군종특별교구 주요 스님들이 불사현황을 브리핑받고 있다.

한국불교 군포교의 중심이 될 홍제사 불사가 본격 막을 올린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교구장 선묵 혜자)는 6월 9일 육·해·공 삼군 본부 영외법당인 계룡대 호국 홍제사 원만 성취와 회향을 기원하는 기원재를 불사 현장에서 개최했다.

군종특별교구는 당초 설계 확정에 이어 착공을 겸해 기원재를 준비했으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군 특별방역으로 기원재를 연기해 왔다. 홍제사 불사는 2020년 11월 24일 기공식에 이어 4월 16일 착공 허가와 함께 불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날 기원재에는 군종특별교구장 선묵 혜자 스님을 비롯해 국방부 군종실장 정우 이정우 법사, 군종특별교구 종책실장 보운 김종봉 법사, 홍제사 주지 진홍 스님 등이 참석했다.

현장에서는 뜨거운 햇빛 속에서도 법당 불사가 한창이었다.

군종특별교구장 선묵 혜자 스님은 "홍제사 불사로 군불교는 한 차원 달라진 모습을 보일 수 있다. 청년 포교를 비롯하여 군포교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한 층 한 층 불자들의 정성으로 쌓아 올리면 부처님 법이 가득하고 지혜와 자비가 충만한 도량이 탄생할 것이다. 호국 홍제사에 십시일반 힘을 모으는 종단 대덕 스님들과 불자분들에게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했다.

이어 선묵 혜자 스님은 "엄정하고 공정한 시공 감리 선정에 이어 남은 불사도 여법하고 원만하게 성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원재에서 경과를 보고한 홍제사 주지 진홍 스님도 "홍제사는 법당과 신행공간, 교육관은 템플스테이도 가능한 숙영공간이 될 계획"이라며 "영외법당으로써 내년 6월 경 완성이 되면 군불교 총본산으로, 포교 도량으로 젊은 청년불자들이 찾아 부처님 법을 배우고 실천하는 기회를 얻을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한편, 홍제사 법당은 대지면적 2만 8868㎡(8733평), 연면적 3483㎡(1054평) 규모로 지상3층 1개동으로 지어진다. 건물 내에는 대법당과 소법당, 회의실, 다목적실과 식당, 카페 등이 들어선다. 법당 예산은 총 62억여 원으로 불자들의 불사 동참이 필요한 상황이다.

홍제사 법당 옆에는 현재 교육관이 국방부 지원으로 건립되고 있다. 교육관은 대지면적 4845㎡(1465평), 연면적 1429㎡(432평) 크기로,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지어진다. 25개 객실과 소법당 등으로 구성되며 장병 및 일반인 교육과 템플스테이 등이 가능하다. 현재 52% 공정으로 올해 10월 8일 완공될 예정이다.

대한불교진흥원, 하반기 4대 공모사업

대원상 · 청년불자상 시상
대원불교학술콘텐츠지원도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이한구)이 불교 진흥을 위해 2021년 하반기에 4대 공모사업을 실시한다.

4대 공모사업은 △제18회 대원상(大圓賞) △제3기 대원청년 불자상 · 동아리상 △제4기 대원불교 학술 · 콘텐츠 △제3기 불교 기관 · 단체 지원사업이다.

먼저 제18회 대원상은 2003년 제정돼 범적으로 포교 활동을 펼치는 출가자 및 재가자를 발굴하여 매년 시상하는 것으로 출가와 재가 부문으로 나누어 선정한다.

대상에게는 2000만 원의 상금이, 특별상 1000만 원, 장려상 500만 원이 수여된다.

접수기간은 9월 1일부터 30일까지로 직접 및 우편으로 신청 접수 가능하다.

제3기 대원청년 불자상 · 리더상 공모는 청년불자 인재 양성을 위해 전국 대학생, 대학원생과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대학교 · 대학원 불교 동아리를 대상으로 불교 장학금 및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장학금 및 활동비 지원 금액은 대학생 · 대학원생 등 개인에게는 300만 원, 초등학생 불교 동아리 50만 원, 중 · 고등학생 불교 동아리 100만 원, 대학생 · 대학원생 불교 동아리 100만 원 등이 지원된다.

접수기간은 6월 21일부터 7월 17일까지로 이메일(kbpf2606@daum.net) 접수가 가능하다.

제4기 대원불교 학술 · 콘텐츠 공모사업은 불교를 오늘에 맞게 연구하는 연구자 개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연구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불교 학술 부문은 저서 500만 원부터 1500만 원까지, 번역서 300만 원부터 1200만 원까지 지원된다.

또 불교 콘텐츠 부문에서 만화 · 동화 · 소설 · 찬불가 작사 작곡 · 수행 프로그램 개발 등에 각각 500만원부터 15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접수기간은 7월 12일부터 8월 13일로 역시 이메일로 접수 가능하다.

제3기 불교 기관 · 단체 지원사업 공모사업은 각 분야의 소모임이나 단체를 비롯해 불교 진흥을 위한 단체들을 적극 발굴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1개 기관 혹은 1개 단체별 100만 원부터 5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접수 기간은 7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다.

노덕현 기자

코로나19 희생자 위한 천도재 봉행

생명나눔실천본부 6월 6일 불암사서


불암사에 모인 불자대중들이 코로나19 희생자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탑돌이를 하고 있다.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가 6월 6일 현충일을 맞아 경기도 남양주시 불암사에서 장기기증자와 코로나19 희생자 및 순국선열의 영가를 축원하는 천도재를 봉행했다.

올해로 27회를 맞은 이번 천도재에는 기증자 유가족을 비롯해 생명나눔실천본부 홍보위원과 회원, 불암사 신도 등 약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전 및 현장접수를 받은 영가 304위를 모시고 의식이 진행됐다.

일면 스님은 "삶의 마지막 순간에 장기기증을 통해 아름다운 나눔을 실천한 장기기증자와 코로나19 희생자, 불암산 호랑이 유격대원 분들의 영가를 위로하고 천도해야 세상이 가벼워진다"면서"이제 생사의 슬픔을 벗어나 평안을 찾고 모든 생명이 함께하는 평화의 세상이 되기를 발원한다"고 전했다.

한편, 생명나눔실천본부는 6.25전쟁 당시 나라를 위해 희생된 육군사관학교 생도를 비롯한 호국영령들과 이름 없는 영가들의 넋을 함께 기리며 그 의미를 더하고 이런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당시 육사생도들의 나라사랑의 정신을 기리고 극락왕생을 발원하고자 이들 영가를 천도하는 재를 봉행하고 있다.

노덕현 기자

'선교난동' 개신교계에 대책 촉구

종평위, 6월 8일 입장문

부처님오신날 법요식이 봉행된 조계사에서 발생한 예수재단과 개신교인들의 '선교난동'과 관련,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가 개신교계에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종교평화위원회(위원장 도심, 이하 종평위)는 6월 8일 '부처님오신날 예수재단 집단시위사태에 대한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의 입장문'을 발표하고 사회화합과 발전을 저해하는 적대적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종평위는 "부처님오신날은 세상의 자비와 평화의 상징이자, 불자들 모두에게 축제의 날"이라며 "불교의 총본산인 조계사에서 봉행된 법요식은 각계의 초청 손님들과 불자들이 방역수칙을 지키며 여법하게 봉행음에도, 일부 개신교인의 지성인답지 못한 행동으로 종교갈등이 야기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종평위는 "법요식이 진행되는 조계사 앞에서 '예수재단' 소속 신자들이 피켓을 들고 찬송가를 부르며 불자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강요하는 전도행위는 종교갈등을 일으키는 매우 비상식적인 행위"라며 즉각 중단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종평위는 "해당 교단은 물론이고 교단을 대표하는 연합기구는 종교간의 화합을 해치는 이러한 행위를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같은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달라"며 "대한민국의 성숙한 시민이자 지혜로운 종교인으로서 이번 사태에 대한 참회와 성찰, 다짐으로 국가의 발전과 화합에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종교 화합을 해치는 사안이 발생할 시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송지희 기자

"신입 대학생 불자, 웰컴!"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회원들에 웰컴박스 발송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회장 안현민)가 신입회원들을 위한 언택트 선물을 전달했다. 대불련은 최근 1차와 2차에 걸쳐 총 45개학교 391명의 학생에게 웰컴박스를 발송했다.

웰컴박스는 대불련이 현장 대면 활동 중단으로 인한 방편으로 올해 도입한 신입회원 환영 선물이다. 웰컴박스에는 A4파일 케이스와 듀얼티슈, 메탈스티커 3종, 불교동아리 가이드북, 방역세트 등 대학생활에서 활용 가능한 물품과 불교문화를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LED 희망연등세트, 종이팔모등만들기 세트, 연꽃포스트잇, 단주, 발우저금통 등이 함께 담겼다.

한편, 대불련은 연등회보존회와 함께 전승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전수교육을 6월 진행한다. 용산구 백년손님 식당 건물에서 진행되는 교육은 6월 12일 연꽃과 연꽃등 제작, 6월 19일 수박등 제작, 6월 26일 초롱등, 팔모등, 지화 제작 등으로 이어진다. (02)2011-1744

노덕현 기자

사단법인 대한불교선재종



출가자와 종도를 모집합니다.
수행의 문턱에서 서로 위로하고 탁마를 함께 하실 도반의 인연이 없고,
어느 종단에 이 한 몸을 의지해야 할지 망설이는 분!
또는 발심출가 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시는 분!
출가는 했는데 은사와의 인연이 박복 하신 분!
도첩이나 호계첩이 없는 분!
여법한 각종의식 진행방법을 모르는 분! 등
승려로서 갖추어야 할 덕목을 저희 종단에서는
가족같이 교육하고 지도하여 정법 수행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 드리고 있으니 문을 두드려 주십시오.

총무원장 성곡 지운

사단법인 대한불교선재종

· 총본산 및 총무원 : 무등산 미륵사
· 부설기관 : 사찰음식전문점 수자타
· 주 소 : 광주광역시 동산길7번길 5-11
· 전 화 : 062)234-9834 팩스 062)223-9233
· 손 전 화 : 010-5479-5607 / 010-8623-3010

출가행자 및 종도모집 안내
기 간 : 상시
자 격 : 신체 건강한 남 · 여 내국인 (연령제한 없이 누구나 가능합니다)